



스무살 전광인 '월드 클래스'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 득점 3위 도약
 대표팀 차세대 간판 공격수 입지 굳혀

세계 최강을 가리는 2011 월드리그 국제 남자배구대회에서 대표팀의 차세대 간판 공격수로 입지를 굳힌 전광인(20·성균관대)이 전체 득점 3위에 올라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전광인은 13일까지 조별리그 6경기씩 치른 결과 스파이크로 83점, 블로킹으로 11점, 서브로 6점을 올려 총 100득점으로 바르토츠 쿠렉(폴란드·104점)과 마코 오이바넨(핀란드·102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갓 스무 살에 성인 국가대표 유니폼을 처음으로 입고 올린 성적치고는 놀라운 수준이다.
 전광인은 지난달 28일 조별리그 1차전 쿠바와의 경기에서 양팀 합쳐 최다인 20점을

터뜨리며 한국이 쿠바를 27년 만에 격파하는 데 일등공신으로 나섰다.
 4~5일 프랑스와의 두 경기에서는 29점을 몰아쳐 한국의 2연승을 주도했고 12일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는 실사 증세가 심해 체력이 바닥났음에도 불구하고, 21점을 터뜨리며 주포 노릇을 했다.
 키가 193cm로 레프트 공격수로는 작은 편인 전광인은 스파이크를 때릴 때 최고 높이는 3m10까지 올라가고 블로킹을 할 때는 3m까지 손을 뻗는다. 점프력도 괜찮지만 전광인의 최대 장점은 스피드에 있다.
 한국배구연맹(KOVO) 대외협력부장으로 재직 중인 황승연 전 국가대표 감독은 "전광인은 상대 블로킹을 이용할 줄도 알고

특히 경기의 흐름을 잘 타며 수비 실력도 좋다"고 말했다. 황 감독은 또 "정점에서 볼을 때리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전광인은 올라가는 공을 반 박자 빨리 손목 스냅을 이용해 때린다. 전광인의 처내기 득점이 많은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분석했다.
 체중을 실어 때리면 그만큼 파워가 있지만 그만큼 상대 블로커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쥐 막힐 가능성도 커진다. 반면 전광인은 상대 블로커에 맞춰 볼을 틀어 때리거나 밀어 때리는 순간 응용력이 좋기에 상대 장신 블로커들이 막기 어렵다는 게 황 감독의 설명이다.
 황 감독은 "문성민(현대캐피탈), 김요한(LIG손해보험), 김학민(대한항공) 등 스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 의도하지 않게 전광인과 최흥석이 주전으로 발탁됐으나 지금까지 박기원 감독의 '빠른 배구' 스타일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젠슨 버튼(영국·맥라렌)이 13일 캐나다 몬트리올의 질 빌너브 서킷에서 열린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포뮬러 원(F1) 캐나다 그랑프리 우승한 뒤 삼페인을 터트리고 있다. /연합뉴스

KIA 불붙은 방망이... 한화·삼성 잡고 1위 간다



주간 프로야구 전망대

1~4위 1.5게임차 물고 물리는 선두싸움

■ 2011 프로야구 중간순위 (6월 13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SK	55	33	22	0	0.600	-	2승
2 KIA	59	34	25	0	0.576	1.0	1승
2 LG	59	34	25	0	0.576	1.0	1패
4 삼성	58	32	24	2	0.571	1.5	3승
5 롯데	57	26	28	3	0.481	6.5	1승
6 한화	60	25	34	1	0.424	10.0	1패
7 두산	57	23	32	2	0.418	10.0	2승
8 넥센	57	20	37	0	0.351	14.0	3패

물고 물리는 선두싸움이 시작됐다.
 지난주 야구팬들의 눈길은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맞대결이 벌어진 군산에 집중됐다. 두 팀의 대결 양상에 따라 선두까지 바뀔 수도 있는 박빙의 승률 싸움이 전개됐기 때문이다.
 관심을 모았던 군산대전의 승자는 2승1패를 가져간 LG가 됐다. 승차없는 단독 2위로 1위를 노렸던 KIA는 2패를 당하며 공동 2위로 홈 6연전 일정을 마감했다.
 KIA와 LG가 승을 놓고 격돌하는 동안 SK는 힘 빠진 두산을 상대로 워닝시리즈를 가져가면서 승률을 6할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SK가 1위 자리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중 경기 결과에 따라서 1위팀이 뒤바뀔 수 있다. 삼성까지 주말 넥센과의 3연전에서 싸움이 3연승에 성공하면서 박차 추격을 해왔다. 1위 SK부터 4위 삼성까지 1.5게임차의 순위싸움을 벌이면서 녹색 그라운드가 어느때보다 뜨겁다.
 0.5게임차로 공동 2위 KIA와 LG를 쫓고 있는 삼성이 이번주 프로야구 판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삼성은 주중 LG와 홈경기를 갖고, 주말에는 광주로 건너와 KIA를 만난다.

단순한 경기 일정만으로는 주중 3연전에서 6위로 뒤쳐져있는 한화를 만나 KIA가 유리하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KIA에게 만만치 않은 6연전이 될 전망이다.
 KIA는 올 시즌 한화와의 대결에서 4승4패를 거두는데 그쳤다. 14일에는 'KIA 킬러' 류현진이 출격해 사재움을 맞이한다. 눈부신 성장세로 한화 마운드의 신동력으로

로 급부상한 양준도 KIA전을 준비하고 있어서 만만치 않은 승부가 예상된다.
 주말 삼성과의 대결에서도 마운드가 KIA의 고민이다.
 KIA는 지난주 LG와의 주말 3연전에서 트레비스의 조기 붕괴와 선발 로테이션의 공백으로 허무한 2패를 기록했다. 사재음이 두 차례 등판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 대체 선발이 불가피하다.
 선발 고민에 빠진 KIA는 '회력'으로 초반에 승기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지난주 김원섭과 안치홍이 부상으로 빠진 자리에 김주형·나지완 두 거포가 합류했다. 수비력은 떨어졌지만 공격력이 강화됐다.
 KIA가 날카로워진 창으로 두터워진 한화와 삼성의 방패를 뚫을 수 있을지에 팬들의 관심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40세 프레이저 PGA 355번만에 첫 우승

세인트주드 클래식

'늦깎이' 헤리슨 프레이저(40·미국)가 355번째 출전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에서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프레이저는 13일(한국시간) 미국 테네시주 펄퍼스의 사우스윈드 TPC(파70·7244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페덱스 세인트주드 클래식(총상금 560만달러)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13언더파 267타가 된 프레이저는 로

베르트 카를슨(스웨덴)과 같은 타수를 기록해 연장 대결을 벌인 끝에 세 번째 홀에서 잡힌 우승을 차지했다.
 프레이저는 1998년부터 PGA 투어에서 활약 중이지만 지금까지 1승도 올리지 못했다.
 1998년 5월 바이탈넬스 클래식에서 공동 2위를 할 때만 해도 곧 우승 소식을 전할 것 같았던 프레이저는 지금까지 준우승 4회, 3위 6회의 성적만 냈을 뿐 우승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그나마도 2006년 이후로는 3위

안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어 나이 40을 넘긴 올해 프레이저는 퇴물 취급을 받아도 할 말이 없던 처지였다. 2008년 12월에는 퀴리파 잉스풀을 다시 거치기도 했다.
 프레이저는 "솔직히 내가 우승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최근 들어 기대치를 줄였다니 오히려 흥분해졌던 것 같다"며 기뻐했다.
 우승 상금 100만8000 달러는 프레이저가 2009년과 2010년 두 시즌 동안 벌어들인 상금(94만 달러)보다 많은 것이다. /연합뉴스



버튼, 마지막 바퀴서 역전 우승

F1 캐나다 그랑프리, 페텔 2위

브레이크 없이 내달리던 '페텔'의 연승 가도가 멈춰섰다.
 12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 질 빌너브 서킷에서 열린 '2011 포뮬러원 월드 챔피언십' 시리즈 7라운드 경기에서 젠슨 버튼(영국·맥라렌)이 빙속에서 짜릿한 역전 레이스를 펼치며 포디움 정상에 올랐다. 버튼은 이날 비가 내려 2시간 이상 레이스가 중단, 주행시간만 4시간을 넘긴 경기에서 4.361km의 서킷 70바퀴(총길이 305.27km)를 4시간04분39초537에 달려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레인마스터'라는 별칭이 붙은 세바스티안 페텔은 예선에서 풀 포지션을 확보하고 레이스 내내 선두를 지켰지만 마지막 바퀴에서 버튼에게 역전을 허용, 2위에 그쳤다.
 버튼은 5바퀴를 남기고 'F1 황제'미하엘 슈마허(독일·메르세데스)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선 뒤 5초 가까이 벌어졌던 페텔과의 격차를 1초 가까이 좁힌 상태에서 마지막 바퀴에서 추월에 성공, 처음으로 체커기를 받았다.
 슈마허도 올 시즌 최고 성적을 올렸다. 슈마허는 5바퀴를 남겼을 때만 해도 2위에 올라 지난 시즌 현역 복귀 후 처음으로 시상대

에 오를 것으로 기대됐지만 3바퀴를 남기고 마크 웨버(호주·레드불)에게도 추월당해 4위로 레이스를 마쳤다.
 한편, 현재 종합 순위는 페텔이 161점으로 선두를 지키고 있으며 버튼이 101점으로 2위에 올랐다.
 /김여울기자 dok2000@kwangju.co.kr

첨단고 김상아 태권도선수권 금



첨단고 김상아(1년)가 2011년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상아는 12일 강원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고등부 라이트급 결승에서 수원정보고 김형신과 서든테스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1회전에서 2-0으로 뒤졌던 김상아는 2회전에서 빗차기와 뒤돌려차기로 연속해서 3점을 얻으며 3-2 역전에 성공했다. 그러나 3라운드 대결에서 6-6 동점을 이룬 김상아는 서든테스에서 김형신의 감점을 얻어내면서 금메달을 가져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기간: 2011년 6월 1일~8월 31일까지

"Hot"한 여름을 "Cool"하게 날려줄

Beer Party!

매일 저녁 Cool하게 즐긴다!!

샐러드 뷔페 이용시 맥주 및 음료가 무제한 공짜!! ₩27,500 (세금포함)

행사장소: 6F SKY LOUNGE 상기 이벤트는 매일 오후 6시 부터 12시 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예약문의 : TEL. 062)228-8000 / 062)221-4130